

# “예산 1조시대 열어 지역경제에 활력...잠자는 광양 깨우겠다”

## 민선 6기 단체장에 듣는다 정현복 광양시장

정현복(64) 광양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단체장이라 평가를 받고 있다. 무소속 후보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에서 당선된 것은 순전히 시민들과 오랫동안 호흡하고 눈높이를 맞춰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정 시장은 마음을 열고 시민들과 접촉하다 보니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며 시민들의 요구에 답하는 길은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이 구상하는 광양시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들어봤다.

-시민들이 시장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누가 더 열심히 광양시를 위해 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신거 같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나름대로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무엇보다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되돌아 보고 변화없이 노력하겠다. 동서와 도·농간 민심을 아우르고 시정 발전에 시민의 힘을 모아 나가는 화합의 시장이 지향하는 바다.

광양시 발전의 양대 축인 철강산업의 부진과 항만산업이 지지부진한 여파로 광양경제가 최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역경제 침체시기를 시급히 탈피시켜 새로운 도약을 창출해내는 역량을 발휘해 희망찬 광양시민의 시대를 열겠다.

아울러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이 주인이 되는 광양,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드린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힘있는 광양, 전남 제1의 도시 광양’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

-민선 6기 주요 시정방향은.  
▲광양시는 성장 동력이 충분히 발전 가능성 또한 큰데 반해 성장속도는 거북이



정현복 시장 프로필 ▲1949년 12월 9일(만 64세) 광양 골약동 출생 ▲광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전남도 예산담당, 농림과장, 공보관 ▲신안부군수 ▲광양부시장 역임

## 공장용지 최저가 공급...기업하기 좋은도시로 일자리 1만여개 만들고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

이들테면 5세 어린이 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보육제단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광양시가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라는 것에 착안했다. 40대 초반의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안전하게 애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느낀 점은 유권자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조그만 생활 공약이라도 꼼꼼하게 준비하면 알아봐 주시더라.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향후 4년간 '광양호'의 방향을 보여주는 시정 목표는 무엇인가.

▲모든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이다. 이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 행정', 가치를 높여주는 '명품 행정'을 시정의 기조로 삼아 일로서 승부를 겨루고 평가받는 시장이 되겠다.

광양시정의 최종목표는 시민 행복이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땀 흘리는 참 시장, 겸손하고 따뜻한 시장이 되겠다.

걸음마를 해왔다. 변화와 힘찬 도약이 필요한 시점인데 어렵게도 그렇지 못해왔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안정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역동적인 행정을 펼쳐 잠자는 광양을 깨우겠다.

이를 위해 현재 6000억원 규모의 시 예산을 임기 내에 1조 원까지 끌어올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

도시가 통합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하루속히 극복해 나갈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황금, 황길, 성황·도이, 와우, 광영·의암 택지개발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목성과 덕래리의 도시개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대형아울렛(복합상가) 입점 등 대규모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 광양읍권 인구를 1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광양시의 천혜자원인 명산 백운산을 비롯해 섬진강의 수려한 관광자원과 다양한 문화를 아우르는 진상·진월·다압과 경남 하동간 섬진강 양안을 문화 관광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의 섬진강권 문

화벨트와도 일치하는 측면이 강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명당·신곡·대근·익신·세풍산단 등의 조기개발과 이곳에 탄소산업과 환경·에너지분야 산업을 유치하고, 광양항 동측·서측 배후단지를 잇는 신성장 산업벨트를 구축해 광양시를 동서화합과 창조경제의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계획이다.

-일자리 많이 만들고 취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집체 국면의 철강과 항만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 여기에 탄소 소재산업과 기능성 화학 소재산업 등 고부가가치 신소재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

력의 기반으로 삼겠다.

특히 공장용지를 최저가로 공급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갖추겠다. 현재 우리 지역 공단의 평당 분양가가 90만~1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영개발 방식 등을 통해 공장용지를 80만원대로 제공하면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관행을 탈피한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펼쳐 재임기간 내에 153개 이상의 우량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취업전담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일자리 1만 개 이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임기내 실현하고 싶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수도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그늘진 곳을 살피는 현미경 복지를 펼

치는데 정열을 쏟겠다.

앞에서 언급한 어린이보육제단 설립이 대표적이다. 젊은 도시 광양의 특성을 감안해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장수수당과 노인 일자리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모든 시민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서민아파트 우선 지원조례 제정, 사회복지 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공적 지원은 물론 민간자원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도시라고는 하지만 농·어민에 대한 지원 정책도 필요할 텐데.

▲국비와 도비, 기금을 최대한 확보해 농어촌 예산을 연 100억원 이상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주력 품종인 매실 등 과수작물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할 생각이다.

-문화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크다.

▲도시의 품격은 문화와 예술에서 확인된다.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문화 예술분야 정책으로는 우선 민영 영화관 유치와 광양을 원도심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일이다. 이처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 환경을 구축하는데 전력하겠다. 또한 시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체육 활성화로 스포츠 메카도시로서의 위상도 확고히 하겠다.

또한 옥룡 도선국사 권역 풍수 테마파크 조성,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문화복지를 한 단계 상승시킬 계획이다. 문화·예술·체육이 복합적으로 발전할 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진정한 의미의 힐링 도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름대로 공약을 준비했다. 이것들을 임기동안 하나씩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공직자들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 결국 시민들이 힘써 힘을 모아줄 때 가능한

## 광양·하동 섬진강 양안 문화관광지대로 조성 복지사각 없애고 안전망 정비해 시민행복 창출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농산물 생산기반과 농업관광 기반 구축, 3농(농업·농촌·농민) 선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가들의 연간 평균소득을 5000만원 이상 실현하는데도 힘쓰겠다.

-공영도시로서 대기오염 등 환경이 비교적 좋지 않다는 이미지가 있다. 안전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복안은 있는가.

▲최근 온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준 여객선 침몰사고를 거울삼아 지역의 안전 관리대책을 보다 강화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재난·재해 예방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환경 감시체계와 통합관제 센터를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태인동 장내유수지 비점 오염저감사업 추진과 역성 안산취수기서비스 운영, CCTV 설치 확대, 10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광양 동·서천 생태하천과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도이 근린공원과 옥곡 생태전 복원을 조기 발주해 녹색공간을 늘려나갈 생각이다.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길을 대폭적으로 열 계획이다.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정 사례가 중복투자다. 예를 들면 시민들은 밀정만 보도블럭이 연발이면 의례적으로 교체되는 공사를 보면서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를 한다. 이런 일은 비단 보도블럭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자신들의 세금이 쓸데없는 곳에 쓰이는 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시민들은 이제 많지 않다.

따라서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을 예산 편성과정부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일종의 주민 참여 예산제인데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예산을 선택하게 할 것이다. 필요하면 주민들이 현장에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길거리 투표제'를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공직자들에게는 광양의 품격을 한 층 더 높이고 깨끗하고 청렴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관행을 탈피해 창의적이며 더욱 적극적이고 친절한 자세로 일하고자 당부하고 싶다.

/정월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정부 조달물자계약 업체

### 모든 가구가 한곳에!

취급품목  
사무용, 교육용, 의료용, 주방가구, 아파트실내가구

(주)엔에스퍼니처 광양지사  
T (061)793-7704 H 010-3114-3063  
웹사이트 ID : gane82 / PW : 1111  
광양시 중앙로 494-1 (마동정수장 앞)

###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효창건설(주)

전문건설업, 건축물 조립공사업, 지붕판금, 창호공사업, 금속구조물

효창건설(주)  
대표이사 송재무  
T (061)792-5577 H 010-3622-7755  
위치 : 광양시 강변로 41 (광영동)